

등록번호	문화체육과-16458
등록일자	2015. 10. 21.
결재일자	2015. 10. 2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문화기획팀장	문화체육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천정훈	조영아	이현근	오제성	代이경현	10/21 문석진
협 조					

2015 서대문독립민주축제 자체평가결과 보고



서 대 문 구
문화체육과

2015 서대문독립민주축제 자체평가결과 보고

- 목 차 -

I. 축제개요

1. 축제 개요
2. 프로그램

II. 축제 추진 결과

1. 사업 계획 및 내용 부문
 - (1) 목표, 전략, 구성
 - (2) 독창성, 차별성
 - (3) 홍보 마케팅 전략
2. 사업운영 부문
 - (1) 조직체계 및 인력 운영
 - (2) 예산 운영

III. 축제 성과

1. 비계량적 축제 성과
2. 계량적 축제 성과
3. 홍보 성과

IV. 축제 개선노력

1. 작년 대비 개선점
2. 사업추진 한계 및 문제점
3. 중장기 계획

I. 축제 개요

1. 축제 개요

구분	내용
축제명	서대문독립민주축제
축제유형	전문예술문화형 □ 시민문화교류형 ■ 관광마케팅산업형 □
축제기간	2015년 8월 14일 ~ 2014년 8월 15일 [축제주간 8.8(토)~8.15(토)]
축제장소	서대문독립공원 및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주관	서대문독립민주축제추진위원회
주최	서대문구
사업비	총 179,866천원 (시비 27,000천원, 구비142,866천원, 민간후원 10,000천원)
협력 단체	몽양여운형선생기념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소셜아트플래튼, 극단 진일보, 흥은청소년문화의집 외

2. 프로그램

○ 공연마당

- 개막식 '당신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 독립·민주지사 5인 풋프린팅, 국악·무용·뮤지컬 창작극, 축하공연
- 역사콘서트 '광복 70년, 다시 해방을 부르다' : 역사학자의 이야기, 오케스트라와 성악가의 공연, 기록영상이 결합된 일제강점기 사건과 인물에 대한 스토리텔링 콘서트
- 우리가락 우리마당 : 광복 70주년을 축하하고 앞날을 기원하는 비나리, 판굿, 소리 한마당

○ 참여마당

- 시민참여 역사순환극 '아리랑 랩소디' : 조선인 역할을 부여받은 관람객들이 형무소를 이동하며 극에 참여
- 미(涙)루(淚), 그들의 눈물을 지켜보다 : 1930년대 서대문형무소 수감자의 일상을 관람객과 함께 재현
- 광복 70주년 기념 '대한민국을 그리다' : 독립·민주지사와 다양한 일반시민들의 모습이 담긴 걸개그림 함께 그리기
- 독립군 구출 대작전 : 독립군을 감옥에서 탈출시키는 각종 미션 수행
- 옥사체험 '광복의 아침' : 독립운동가의 수감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1박 2일 옥사 체험

○ 배움마당

- 살아있는 근대사 이야기 : 중고등학생, 근현대사 특강, 근대유적 현장답사 등
- 자랑스러운 민주시민 되어보기 : 초등학생, 민주주의와 인권의 개념과 실천적 행동
- 역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기 : 성인, 민주주의 속에서 찾아보는 독립운동 등
- 한 여름 밤에 떠나는 감옥여행 : 역사속의 서대문형무소 이야기, 심야의 형무소 돌아보기

○ 체험마당

- 역사기념관 : 위국투쟁 손수건 만들기, 무궁화 만들기, 게릴라 미술로 그려보는 민주주의 등
- 지역단체 : 독립 타투 그리기, 평화의 비둘기 만들기,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 사회·문화단체 : 독립운동가 코스프레, 독립선언서 손도장 찍기, 한글퀴즈 등

II. 축제 추진 결과

1. 사업 계획 및 내용 부문

(1) 목표, 전략, 구성

○ 목표

-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상징성을 기반으로 하여 독립과 민주의 역사를 알리고 가치를 되새기도록 의미와 재미를 갖춘 근대역사문화축제로 구성
- 시민들이 함께 광복을 축하하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8.15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자리매김

○ 전략

- 역사성이 명확하고 집중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축제의 특성을 살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콘텐츠 강화
- 주제를 살리면서도 축제성 있는 고유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차별성과 연속성 확보
- 시민네트워크와의 연계 확대를 통해 수준 높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 견인

○ 비전

- 광복 70주년을 맞아 서대문형무소가 지닌 역사적 상징성이 다각도에서 조명을 받으며 축제 인지도 동반 상승하여 서울 및 인근 수도권 지역을 아우르는 역사문화축제로 발돋움

(2) 독창성, 차별성

○ 주요 프로그램의 기획 포인트 : 주제에 충실하면서도 축제성을 담보, 시·공간적 적시성과 특수성을 살려 구성

- 역사콘서트 :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축제의 주제와 정체성을 음악과 이야기, 영상이 결합된 완성도 높은 공연을 통해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정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아리랑랩소디 : 단순한 극 구조와 퍼포먼스를 결합하여 축제 관람객이 형무소에서 해방을 맞이하는 광복절 퍼포먼스로 구성, 서대문형무소의 특성을 극대화한 독립민주축제 고유 프로그램으로의 가능성 타진
- 미(戀)루(淚), 그들의 눈물을 지켜보다 : 역사적인 고증을 바탕으로 한 형무소 재현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및 성인 참여 유도
- 옥사체험 '광복의 아침' : 방학기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형무소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

○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 체험마당 운영

- 구성·운영 : 지역단체, 청년문화단체, 독립기념관, 민주화기념관 등 직접 기획 및 운영
- 기획 단계 참여 방안 : 축제 관련 콘텐츠 보유단체, 지역 커뮤니티 대상 참여 제안 - 단체 기획안 제출 - 협의 및 결정

(3) 홍보, 마케팅

○ 홍보기간 : 2015. 7. 10 ~ 8. 15

○ 홍보전략

- 광복 70주년을 맞아 사적지에서 의미 있는 역사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역사문화축제로 부각
- 개별 프로그램이 지니고 있는 예술적, 교육적 요소들을 강조하여 각 수요층 대상 프로그램별 홍보
- 인기 있는 참여프로그램 블로그 통해 사전신청 접수, 맘카페, 파워블로거 등의 전파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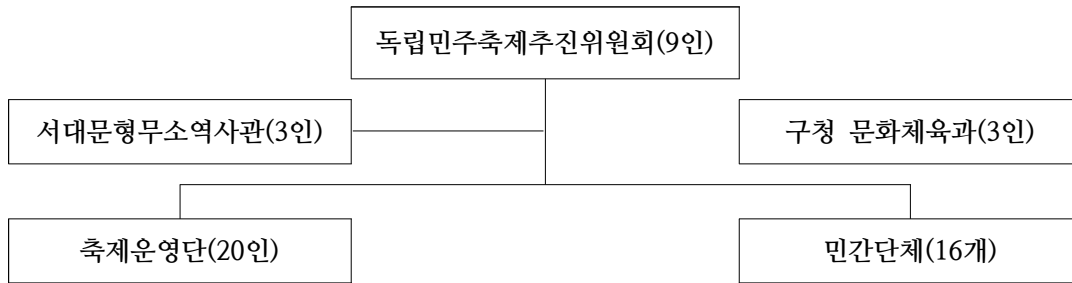
○ 홍보방식

- 프로그램별 웹 전단 제작하여 문화포털, 문화·체험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배포 및 SNS 홍보
- 개막식, 역사콘서트 2종 거리현수막, 마을버스현수막, 통일로 가로배너 게시
- 개막식, 역사콘서트 포스터 2종 제작,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인근 2,3,5호선 지하철역 게시
- 축제 전용 블로그(<http://blog.naver.com/sidfest>) 프로그램 상세 정보 제공 및 참여 신청 접수
- 프로그램 운영 민간단체 홍보라인 병행 홍보

2. 사업 운영 부문

(1) 조직체계 및 인력 운영

○ 조직구성



- 추진위원회 : 축제일정, 프로그램, 예산 및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 및 확정, 예산 집행 등
- 문화체육과 : 축제 기획 및 협의, 예산 집행, 대인론홍보 및 주민홍보, 안전 관리 등
- 형무소역사관 : 시설물 사용 협조 및 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축제운영단 : 지역문화단체, 대학생 등으로 구성,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SNS 홍보, 행사 운영 등
- 민간단체
 - 역사·문화단체 :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극단 진일보, 안성 3·1운동기념관, 의암류인석선생유적지, 최용신기념관, 몽양여운형선생기념관, 김한중의사기념관, 심산김창숙기념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한열기념관, 4·9 통일평화재단, 대학생연합한국문화홍보동아리 BKO
 - 지역단체 : 소셜아트플래튼, 서대문청소년수련관, 흥은청소년문화의집, 가재올라디오

○ 인력 운영

- 내빈 의전 : 연로한 독립민주인사 door to door 의전 직원 32명
- 메인무대 진행 : 직원 2명, 운영단 4명, 자원봉사자 4명
- 부대행사 운영 및 체험부스 운영 : 직원 2명, 운영단 10명, 자원봉사자 20명
- 안내 및 안전관리 : 직원 20명, 운영단 6명, 자원봉사자 20명

○ 인력 관리

- 직원(분야별 총괄), 운영단(프로그램, 세부분야별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실행)로 역할 분담
- 자원봉사자 사전교육 통해 행사 내용, 행동 매뉴얼 숙지

(2) 예산 운영

○ 재원별 예산구성 : 시비 27,000천원(15%), 구비 142,866천원(79%), 민간후원금 10,000천원(6%)

○ 예산집행

(단위 : 천원)

집행항목	집행금액	당초계획	계획대비 적정여부
출연료, 강사료, 운영단 활동비 등 보상금	89,220	90,000	적정
무대, 음향 시스템, 행사물품 등 장비 임차료	42,720	44,000	적정
포스터, 리플렛,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	17,980	18,000	적정
체험프로그램 등 재료 및 진행비	13,852	15,000	적정
내빈만찬, 행사진행요원 식대, 간담회 비용	8,529	10,000	적정
행사보험료, 진행물품 등 기타 경비	7,565	10,000	적정
합 계	179,866	187,000	적정(절감)

Ⅲ. 축제 성과

1. 비계량적 축제 성과

- 8. 15에 일제 강점기와 독립, 그 이후의 근현대사를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역사콘텐츠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역사문화축제로 정착
- 독립민주축제 고유의 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 역사콘서트, 아리랑랩소디, 미루 등 - 개발로 축제의 정체성 및 연속성 담보
-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관람객 저변 확대 -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에서 청소년, 성인층으로 관람객 확장
-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 볼 기회를 제공, 긍정적 경험을 쌓은 청소년들의 참여 확대와 역할 강화 기대
- 민간 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자체 기획 및 진행 시스템 안착

2. 계량적 축제 성과

- 집객현황
 - 행사장 입장인원 : 14일 32,673명, 15일 40,317명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입장인원 공식 집계)
 - ※ 입구에서 계수기로 입장인원 산정, 타지역민 및 외국인 참여비율 산정 어려움
- 사업성과
 - 공연 관람 5,000여명, 참여프로그램 1,200여명, 교육프로그램 240여명, 체험부스 이용 6,200여명, 전시관람 70,000여명
 - ※ 전체 프로그램 무료 진행, 유료 수익 없음

3. 홍보 성과

○ 언론보도 : 사전 18개 매체 20건, 사후 10개 매체 21건

사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 7 서울신문 '화합의 장' 독립민주축제 - 8. 10 서울신문 "내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습니다" - 8. 11 해럴드경제 서대문구, 14~15일 독립민주축제 개최 - 8. 11 아주경제 '광복 70주년, 그날의 감격을' 서대문독립민주축제 14~15일 개최 - 8. 12 시민일보 '광복 70년, 다시 해방을 부르다' - 8. 13 문화일보 서대문독립민주축제 14, 15일 개최 - 8. 14 국민일보 일제 만행의 현장, 서대문형무소 - 8. 14 KBS2TV 생방송 아침 광복절 특집 현장 생중계 외 12건
사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 15 연합뉴스 서대문독립민주축제, 독립민주인사 포토프린팅 - 8. 15 KBS뉴스 다시 맞는 '광복의 기쁨' 다채로운 행사 풍성 - 8. 15 SBS뉴스 2,500명 하나되어 거대 태극기 물결 "잊지말자 그 날" - 8. 15 한국경제TV 광복 70주년 기념 '서대문독립민주축제 성료' - 8. 15 뉴시스 서대문구, 독립민주인사 족적 기록으로 남겼다 - 8. 19 시민일보 서대문독립민주축제 태극기 물결 외 15건

○ 주요보도기사

사전 「서울신문 - 2015. 8. 7」

서울신문 2015년 08월 07일 (금) 15면 서울

'화합의 장' 독립민주축제

14~15일 서대문형무소 일대 광복 70주년 기념 연극 등 개최

서대문형무소 일대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역사문화 축제가 열린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행사를 더 키웠다.

서대문구는 오는 14일과 15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서대문독립공원에서 '2015 독립민주축제'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장소의 역사적 상징성을 기반으로 독립과 민주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취지다.

행사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일제강점기 시절 활동했던 고령의 독립지사, 민주화 운동 인사가 참여한다. 대표적인 행사는 14일 밤 개막식에서 진행될 독립지사·민주인사 '풋프린팅'이다. 헐리우드의 핑거프린팅에서 착안해 2010년 처음 만들었다. 그동안 이병호 독립유공자협회 전 회장 등 여러 독립지사와 민주인사들이 발자국을 남겼다. 이날 개막식에는 전인권밴드와 로맨틱펀치, 박기영 등이 축하공연을 한다.

광복절인 15일 저녁에는 '광복 70년 다시 해방을 부르다'를 주제로 역사콘서트 가 펼쳐진다. 일제 강점기의 억압과 수난, 저항과 슬픔, 해방의 기쁨을 주제로 음악과 이야기를 엮어 3부로 구성했다.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정의근, 시온 오케스트라 등이 무대에 오른다.

무엇보다 시민 참여 행사가 많다는 게 특징이다. 사진 참여를 신청한 시민 200여명과 당일 현장 관람객 500여명이 참여하는 순환연극(관객들이 이동하며 공연하는 형태의 연극) '아리랑 랩소디'가 대표적이다. 관객들은 일제강점기의 박해받는 조선인이 돼 옥사와 광장을 이동하며 '해방 플래시몹'을 벌인다.

시민 2000명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그리다'도 있다. 독립지사·민주인사와 일반 시민들이 밀그림이 그려진 결계색을 채워 완성하면 옥사 외벽에 전시한다. 학생들에게 역사와 옥사를 일깨워 줄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40명이 서대문형무소에서 1박 2일을 함께 보내는 옥사 체험, 독립군을 감옥에서 탈출시키는 미션을 수행하는 '독립군 구출 대작전' 등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고난의 역사도 축제가 될 수 있다"며 "독립을 위해 애쓰신 분들을 우리 사회가 잊지 않고 예우하는 차원에서 도 중요한 행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지숙 기자 tuth173@seoul.co.kr 11.1 X 18.3 cm

사전 「문화일보 - 2015. 8. 13」

문화일보 2015년 08월 13일 (목) 14면 지역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14, 15일 개최

형무소역사관·독립공원서 풍물패 축하공연 등 마련

광복 70주년의 감격을 나누는 2015 서대문독립민주축제(사진)가 14, 15일 이틀간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서대문독립공원에서 펼쳐진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13일 "자치구 지역 축제 성격을 넘어 '광복절에 남녘노수구나 광복을 축하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종합 역사문화축제'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독립민주인들이 참여하는 '풋프린팅'이 14일 오후 7시 30분부터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주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진행된다.

구는 축제가 시작된 2010년부터 매년 독립민주인사를 선정하고 이 같은 기념행사를 펼쳐오고 있으며, 올해는 독립운동가로 항일결사조직인 개진대(改進黨)와 조선독립청년당을 결성해 일제에 항거한 조성인(93) 지사,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와 광복군 제2지대에서 일본군에 대해 공작활동을 펼친 이운장(92) 지사가 참여한다.

풋프린팅을 전후해서는 미동초등학교 풍물패, 전인권밴드 등이 출연해 '당신의 역사를 기억합니다'란 주제의 축하 공연을 펼친다. 광복절 오후 7시 30분부터는 역시 주 무대에서 역사학자와 음악가가 함께 기획한 역사콘서트 '광복 70년, 다시 해방을 부르다'가 열린다.

또, 14일과 15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어린이가 포함된 가족 단위의 시민 40명씩, 모두 8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1박 2일 옥사(獄舍)체험 '광복의 아침'이 열린다.

이밖에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색을 채워 독립민주인사들의 모습을 담은 대형 결계그림을 완성하는 '대한민국을 그리다', 압호를 풀고 물총싸움을 하며 독립군을 감옥에서 탈출시키는 '독립군 구출 대작전'도 마련된다.

문의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02-330-8161). 김윤림 기자 11.4 X 15.9 cm

사후 「KBS 뉴스9 - 2015. 8. 15」



사후 「아시아경제 - 2014. 8. 16」

아시아경제 > 포토뉴스 > 서대문독립민주축제, 태극기 물결

시민일보 | siminbo@siminbo.co.kr

영인 2015.08.17 16:30:48

지난 15일 서대문구가 주최한 '2015 서대문독립민주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시민참여 역사 연극 '아리랑 랩소디'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펼쳐진 가운데 참가시민과 어린이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다. (사진제공=서대문구청)

<저작권자 © 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 프로그램 운영 사진



독립민주인사 포프런팅



개막식 축하공연



역사콘서트



아리랑랩소디



미(戀)루(淚), 그들의 눈물을 지켜보다



대한민국을 그리다



전시제막식 축하공연



체험부스

IV. 축제 개선노력

1. 작년 대비 개선점

- 전년도는 주제와 관련 있는 기존 프로그램, 평면적인 구성의 공연, 대담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올해는 역사·문화 콘텐츠를 흥미롭게 구성하여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독립민주축제 고유 프로그램 개발
 - 서대문형무소의 공간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역사콘서트(공연), 아리랑랩소디(집단퍼포먼스), 미루(재현), 독립군 구출 대작전(체험) 등 다양한 형식으로 독립민주축제에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 전년도 참가자의 대부분이 유아동을 동반한 가족이었으나, 올해는 대상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의 내용 수준을 높여 청소년, 대학생 등 청년층 참여 확대
 - 아리랑랩소디, 미루, 한여름 밤의 감옥여행 등은 사전신청자의 30% 이상이 10대~20대
- 효율적인 공간 배치와 관객 편의 향상
 - 공연, 체험 프로그램들이 상호간에 간섭받지 않도록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배치하고 프로그램별로 안내 배너를 두어 관람객에게 정보를 제공, 전년도에 일부 프로그램 시간과 장소가 중첩되는 등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 개선
 - 광장에 전년도의 두배에 달하는 파라솔 설치, 공원 내 편의점과 도시락과 음료수 공급에 관해 사전 협의, 푸드트럭 유치 등을 통하여 휴게공간과 식음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 개선
- 체험부스 재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부스별 휴식시간을 두어 전년도에 발생했던 체험부스 조기종료로 인한 관람객 불만과 부스 운영자의 높은 피로도 해소 노력

2. 사업추진 한계 및 문제점

- 한계 및 문제점
 - 축제의 주제와 내용이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어 독립과 민주를 분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축제의 주제에 부합하고 이에 따른 관람객의 만족도도 높은 반면 개막식의 풋프린팅에 이어지는 대중가수의 축하공연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메인행사 모객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매해 반복되고 있음
 - 관련분야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자체기획시스템이 정착되고 있으나 지역내 단체의 경우 활동 역량의 부족과 네트워크 미비로 부분적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
 - 역사관이 사적지로서 지니고 있는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관객 편의 제공에 한계가 있음
- 향후 개선 사항
 - 심포지엄, 공청회 등을 통해 축제의 주제와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다각도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 ※ 2015년 상반기에 계획되었으나 메르스 사태로 인해 무산됨, 2016년 추진 예정
 - 올해 역사콘서트에 대한 호응을 감안하여 축제의 의미를 살리면서 예술성 있는 기념공연을 제작하는 방안 검토
 - 올해 지역 문화단체 역량강화와 네트워크를 위해 추진해온 문화고리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네트워크와의 연계 강화

3. 중장기 계획

- 독립과 민주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역사문화축제로 자리매김
- 독립민주축제만의 고유한 형식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육성
- 지역의 다양한 문화 주체를 발굴하고 상호 협업을 통해 민간역량을 강화하여 민간주도 축제로 전환